

# 강급자들 밀리고, 무너지고...이번 속출 왜?

선발급 '추입형 강자' 이흥주 등 고전 한때 특선급 류재민 우수급 입상 실패 추입형 강급자들 전범상에 한계 봉착



하반기 경륜 등급 조정 이후 추입형 강급자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고전하며 이번의 발미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벨로드롬이 혼전의 연속이다. 2019년 도 하반기 경륜 등급 조정 이후, 한 수 위의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됐던 강급자들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며 이번이 속출하고 있다. 승부거리가 짧은 추입형 강급자들이 이번의 발미를 제공하는 경주들이 많고, 자력형 강급자들도 기존 강자들과의 맞대결에서 밀리면서 이번을 축발하고 있다.

## ●선발급은 추입형 강급자들의 무덤

선발급에서는 추입형 강급자들의 고전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7기 이흥주는 20일 토요일 선발급 5경주에 출전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기습에 나선 유승우를 넘지 못하며 쌍복승 484.5배의 희생양이 됐다. 이날 이흥주의 가장 큰 패착은 유승우가 아닌 김성용의 뒤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선행력이 엇비슷한 두 선수 중 한 선수를 인정하고 또 다른 선행형은 후방에 세우며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하지만 연대 세력인 노성현을 챙기는데 급급한 나머지 유승우의 선행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며 무너졌다.

7월 6일 토요일 부산 1경주 출전했던

10기 신익희도 기존 선행형을 넘어서지 못하며 최악으로 밀렸다. 이날 신익희는 선발급 선행형 강자인 김기동을 활용하며 우승을 노렸지만 박종승의 견제로 인해 착오하며 쌍복승 153.4배의 발미를 제공했다. 공교롭게도 이흥주와 신익희 모두 추입형 선수들로 전범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 ●강급자 고전 속에 혼전 경주 늘어

특선급에서 간간히 입상권 진입에 성공하며 2진급으로 활약했던 류재민은 우수급에서는 입상 보증수표나 다름없다는 평가였다. 19일 열린 금요일 11경주에 출

전한 류재민은 여유 있는 시속을 바탕으로 쫓기기 완성이 기대됐다. 하지만 기습 선행에 나선 김원호와 이를 활용해 추입 승부에 나서며 우승을 차지한 정상민을 넘지 못했다. 특히 강급 이후 부산 경기에 출전해 3연승을 달리며 조기 승급 1순위로 꼽혔던 터라, 류재민의 입상 실패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겼다. 쌍승 202.0배, 쌍복승 1156.3배의 원인이 됐다.

추입형 강급자 7기 이유진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5일 부산 우수급 11경주에 출전해 강력한 입상 후보로 거론됐지만 전라권 연대인 백동호와 최지윤의 협공에 맥없이 무너졌다. 쌍승 163.9배와

쌍복승 323.6배가 발생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지목했다.

'경륜왕'의 설경석 예상팀장은 "추입형 강급자들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전범 상의 한계가 있어 출전할 시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잦은 비와 폭염으로 인해 평소보다 훈련량이 부족한 자력형 강급자들이 선두 공략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강급자들의 훈련량과 컨디션 파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는 강급자들이 출전할 경우에는 이번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경륜 하반기 전담 선두원 모집 실기·면접시험 거쳐 8명 선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 경정총괄분부는 '2019년 하반기 전담 선두원'을 모집한다.

현재 경륜 시행규정에 따르면 전담 선두원들이 선수들을 유도하는 선두고정경주를 하게 되어 있다. 전담 선두원은 경륜 경주에서 바람의 저항으로 인한 선두 선수의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수 맨 앞에서 지정된 시간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자격은 경륜경정법 제7조 및 경륜 관련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경륜선수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경륜선수 재등록 검정 합격 기준을 준용한 신체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어야 한다. 지원자는 1차 실기시험(유도 주행 평가)과 2차 면접시험을 거친다. 시험일은 7월 25일이며 광명동 경륜장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선발인원은 총 8명(광명 5명, 창원 3명)이며, 희망지역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배정된다. 응시원서는 경륜 홈페이지(www.kra.co.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7월 24일 오후 3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륜 심판팀(전화 02-2067-59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B2→A1' 경정 새 강자 이진우·김완석 주목

손근성·한성근 등은 B2로 수직 하락

경정 하반기가 25회차 7월 17일 수요일 경주부터 시작됐다. 전반기인 1회차부터 24회차까지의 성적(착순점, 연대율, 사고점, 출주 횟수 등)을 토대로 39명은 승급, 46명은 강급돼 총 85명의 선수가 등급 조정됐다.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어지는 A1급에는 심상철(7기), 조성인(12기), 김용선(11기), 이태희(1기), 김현철(2기) 등 현 경정을 대표하는 정상급 선수들 총 23명이 배정됐다.

그중 눈에 띄는 선수로는 전반기 B2급에서 하반기 A1급으로 수직 상승한 이진우(13기)와 김완석(10기)이다. 세대교체의 주역들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들이다. 플라잉 누적으로 인해 전반기를 B2급으로 시작해야 했던 안지민(6기)도 바로 A1급으로 올라서며 제 자리를 찾았다.

등급 조정 막판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성적을 바짝 끌어올린 박원규(14기)도 B1급에서 A1급으로 승급하며 하반기 주목받는 신인급 강자로 올라섰다. 기광서(11기)

는 만년 하위급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전반기 A2급에 이어 후반기에 생애 첫 A1급 달성에 성공했다.

올라간 선수들이 있다면 대조적으로 내려간 선수들도 있다. 올시즌 기본 종계 A1급으로 출발한 손근성(2기)과 한성근(12기)은 각각 사고점 0.80 이상, 플라잉 위반 누적으로 인해 B2급으로 수직 하락했다. 불박이 A1급 선수로 활약했던 박정아(3기), 장수영(7기)도 최악은 면했지만 B1급으로 떨어지는 부진함을 보였다. 플라잉 위반 누적으로 인해 전반기를 B2급으로 힘겹게 출발했던 이용석(1기)은 전반기 내내 부진함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성적부진으로 인한 주선 보

류를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했다.

이번 등급 조정에서 총 13명의 선수가 주선 보류를 받았다. 우진수, 이창규, 한성근, 허서우, 박민영, 한준희는 출발 위반 2회 누적으로, 김희영, 정인교, 김도환, 김기환, 김재운, 이용석은 평균 득점 최하위 5%에 걸렸다. 평균 사고점 1.2점을 넘긴 윤상선도 주선 보류 제재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시즌에 대비한 15기 신인들의 등급조정 데미지도 상당하다. 하위 성적으로 인한 주선 보류를 면제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선 보류를 받을 위험이 없었지만 박민영, 한준희는 플라잉 위반 누적으로, 윤상선은 사고점으로 주선 보류를 받았다. 정용운 기자



## “셀프진단평가 받고 소액으로 토토 즐기세요” ‘야구토토 스페셜’ 오늘부터 정상 발매

건전한 베팅 위해 휴식계획 등 권장

‘스포츠토토, 건전한 소액구매 문화는 스스로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온라인 발매 사이트인 베티맨(www.betman.co.kr)이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이 건전한 소액구매 문화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

베티맨에서 진행되는 건전화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구매자 스스로 진단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베티맨의 건전화 프로그램은 크게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셀프 휴식계획’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셀프 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신의 구매 횟수와 패턴, 그리고 구매 금액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자신의 구매 경향을 진단했다면, 다음 단계는 ‘셀프 구매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 한도와 횟수, 그리고 손실 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적중 금액에서 구매금액을 뺀 손실한도는 본인의 경제사정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기 때문에 건전 및 소액구매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셀프 휴식계획’은 진단을 하고 구매 계획을 세운 결과 휴식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을 위해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휴식 기간은 7일부터 30일, 60일, 90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베티맨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휴면으로 전환하게 된다. 만일 휴식기를 원한다면 베티맨 사이트에 방문한 후, 설정기간을 선택하고 서비스 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을 거치면 설정이 완료된다.

케이토토에서는 매일 건전화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푸집한 경품을 증정하는 등 건전한 소액 구매 환경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다.

건전화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베티맨 사이트를 방문해 ‘건전한 토토, 즐거운 토토’ 코너를 클릭하면 된다.

프로야구 3경기 대상 재계

‘올스타전 마친 KBO, 야구토토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올스타전 휴식이 이후 벌어지는 KBO 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게임의 발매를 재개한다.

가장 먼저 28일(금)에 열리는 두산-KIA(1경기)전과 KT-LG(2경기), 키움-NC(3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70회차는 24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발매를 시작하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과 체육진흥투표권 합법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티맨(www.betman.co.kr)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어지는 71회차와 72회차 역시 같은 경기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 27일(토)과 28일(일) 오후 5시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스페셜 게임의 참여 방식은 2경기 4개 팀의 득점대(6개 구간, 0~1, 2~3, 4~5, 6~7, 8~9, 10점 이상)를 맞히는 ‘더블’과 3경기 6개 팀의 결과를 예측하는 ‘트리플’ 유형으로 진행된다. ‘더블’은 배당률이 적은 대신

적중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는 반면, ‘트리플’은 프로야구에 정통한 고수들에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23일 “후반기에도 야구 관련도의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는 스페셜 게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아이스크림 선물 받자” ‘토토 모의고사’ 이벤트

‘토토 모의고사에 도전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받아주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오는 25일(목) 자정까지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문제를 맞히는 ‘토토 모의고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제시된 문제는 ‘다음 중 스포츠토토의 설명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며, ‘투표권은 회차당 1인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은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다’, ‘스포츠토토는 오프라인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조정된 기금은 한국 스포츠발전에 사용되고 있다’의 네 가지 보기 중 정답을 고르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해 ‘좋아요’를 누르고, 문제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이번 이벤트 참여자 중 정답을 맞춘 1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해당 기프티콘을 공유했다면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이번 이벤트는 26일(금)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